



대상트골프
DISC 쇼케이스
“한국인 축형 최적화”
니



Life

금연시도올 상승
“습관적 행동 줄여야
실패율 낮출 수 있어”
L2



서울시, ‘그린벨트’ 활용방안 찾는다 “전략적 개발 등 도시 대개조 뒷받침”

이달 중 ‘관리·활용’ 영역 추진 지역여건 등 현실 반영 변화상 제시 “경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구상”

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제도와 지정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영역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해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화를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순기능이 있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전체 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주택공급 부족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돼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지역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이번 영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본 영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곳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 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고양시, 4조 규모 전기차설비 투자 유치

중 국영기업 북경자동차 업무협약

고양시가 6일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북경자동차(BAIC MOTOR)와 지정신청을 앞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경자동차는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약 200만㎡(60만 평) 규모로,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생산 및 판매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생산목표량은 연간 20만대 이상이며 생산량의 90% 가량을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R&D연구원 운영, 인재양성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 재직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에 관해서도 고양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북경자동차는 1958년에 설립된 중국 국영 자동차 제조판매기업으로 2023년 세계 전기차 생산 12위, 중국 내 6위를



이동한 고양특례시장(오른쪽)이 6일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북경자동차(BAIC MOTOR)와 지정신청을 앞둔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4조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

기록한 기업이다. 전 세계 48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190위권 기업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최첨단 산업육성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자족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업·공구 등 SNS 입금유도 주의하세요”

서울시 부업사기피해 4.4억 달해

문자메시지나 SNS로 온라인 쇼핑물 부업·공동구매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입금 유도 후 이를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물 부업사기 피해 상담 총 5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금액이 4억3900만원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피해 접수액 1940만원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작년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원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 때문에 푼돈이라도 벌여보려

는 주부와 사회 초년생들이 부업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카페, 문자, SNS 등을 통해 ‘채택근무로 손쉽게 월 200만~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자사 쇼핑물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돈을 입금한 뒤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결제액을 환불해주고 수수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연락을 끊었다. 도매가에 공동구매 상품을 대신 사게 한 뒤 결제액과 수수료를 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의회 “관광도시 걸맞는 인프라 마련해야”

맞춤형 숙박시설 확보 주문 비합리적 행정 개선 지시

서울시의회가 관광특구 안전계획과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숙박시설 마련 등으로 고품격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 총 35건을 접수해 17건에 대한 조

치를 마쳤다. 나머지 17건은 추진하고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의회는 의료관광에서 핵심이 되는 환자 맞춤형 숙박 시설을 확보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이에 시는 의료관광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세울 때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련 영역 과업에 의료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 형태 등을 실태조사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우수관광상품 지원 관련 비합리적인 행정 제도 개선도 지시했다.

시의회는 “고품격 관광 콘텐츠 상품화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연말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평가 순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인다”며 “서울 관광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격 관광 콘텐츠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선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주요상권 점포, 월평균 임대료 450만원 지출

18평 기준… 북창동 1087만원 ‘1위’

지난해 북창동·명동·압구정로데오역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1㎡당 월평균 통상임대료는 약 7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145개 주요 상권 내 1층 점포 1

만25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시가 지난해 8~11월 벌인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서 2023년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당 평균 7만4900원으로 파악됐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인 60.2㎡(18.2평)를 적용하면 통상임대

료는 450만원이었다. 보증금은 1㎡당 95만6000원으로, 평균 점포면적으로 환산하면 5755만원이었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북창동이 1㎡당 월 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평균 전용면적(60.2㎡, 18.2평)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87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됐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5 | 해질 / 18:32

3월 7일 (목)
음력 : 1월 27일

수도권 날씨
2 ~ 8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인천 -2/7, 동두천 0/8, 가평 -1/8, 파주 -2/8, 서울 2/8, 양평 1/8, 수원 2/7, 평택 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토트넘, 손흥민 재계약 적극 추진… “떠날 이유 없다”
/사진 뉴시스
▲ FC서울, 개막전 관객 4만명 기대… “역대 최다일 것”

▲ ‘후배 괴롭힘’ 오지영, 재심 신청 없이 법적 절차 밟을 듯
▲ 스톡 슈마허 감독 “배준호, 말은 못 알아 들어도 잠재력은 최고”



▲ 이강인, 교체 투입 후 도움 기록… PS G 2:1로 8강행
▲ 류현진, “아직 100%는 아니지만, 개막전 문제 없을 것”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